귤림성은 드넓은 귤 밭(귤림)에서 이루다(이룰 성)라는 뜻입니다. 귤 밭에서 보내는 친환경적인 하루를 선사하기 위해 숙소와 침대를 모두 측백나무를 활용해 만들었어요. 제주의 대표 현무암과 야생화 5만여 점의 분재작품을 둘러보고 한라산이 보이는 숨도(숨이 쉬어가는 섬) 카페에서 잠시 쉬어가도 좋은 곳입니다.

"저는 관광사업에 40여 년 넘게 종사했습니다. 신혼여행의 성지로 제주가 뜨기 시작할 무렵부터 대한민국 최초로 팜스테이 펜션을 시작했습니다. 신혼부부로 방문했던 게스트들이 성인이 된 자녀와 함께 찾아주시거나 아침에 잘 가꾼 정원을 보며 행복해하시는 게스트를 보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귤림성 펜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569-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941

우리 숙소의 특별한 점

• 원목 나무 침대에 누워 담뿍 느끼는 나무 향기

• 야외정원에서 만나는 야생초 군락과 여름에 보는 수국, 겨울에 만나는 동백꽃

• 15,000장의 LP 음악, 아날로그 오디오와 함께하는 귀와 입이 즐거운 조식

• 게스트는 무료로 입장 가능한 제주 현무암 석부작 작품이 있는 숨도

이런 여행객에게 추천

• 부모님과 또는 자녀와 함께 온전히 쉬고 싶은 분

• 자연에 흠뻑 젖어들어 편안하게 머물고 싶은 분

• 제주 시골과 도시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위치의 숙소를 원하는 분

알아두면 좋은 사항

• 가을에는 귤 밭 체험을 할 수 있어요.

• 올레시장과 대형마트가 차로 4-5분, 도보 20분 거리에 있어요.

• 유아용 의자가 준비되어 있어요.